

대형 참사 유족의 슬픔에 대한 기록

떠나보내는 길 위에서
노다 마사아키 지음

1장 JAL 추락 사건의 유족들

일상과 비일상을 오가며

오늘날 불행의 특징은, 도시의 일상은 효율을 추구하며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가족을 잃은 유족의 불행한 마음은 움직임을 잃고 멈춰 서 있다는 데에 있다. 사람들, 친구나 지인들,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지역사회도 변함없는 일상에 떠밀려 갈 뿐 유족의 슬픔을 위해 아주 잠깐만이라도 시간을 멈춰 세우지 못한다. 유족들 또한 일상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한다. 일상적인 일이 슬픔을 잊게 한다고들 하지만, 그리고 그 말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말은 현대의 기만이며 슬픔을 얼버무리는 궁핍한 변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슬픔은 일상의 흐름을 끊고 모든 시간을 잠시 멈추고서야 깊이 체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불행은 내달리듯 흐르는 일상의 한쪽 구석에서 함정 같은 공백으로서만 자신을 드러낸다.

나는 슬픔 전문가로서 잠시도 멈춰 설 줄 모르는 일상 세계에서 파견 나온 비일상에 대한 연구자다. 슬픔이란 함께 체험하는 것이지 지식으로 아는 대상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런 점에서 모순된 존재지만 어쨌든 유족에게 말을 걸어 보려 한다. 유족도 역시 일상 세계와 슬픔 사이를 왕복해야 하는 모순 속에 살고 있다. 유족의 집회는 일상 세계에서 진행되는데, 그곳을 지배하는 것은 죽은 이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시간이 정지된 비일상이다. 나는 일상 세계에서 축적된 슬픔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슬픔이라는 비일상 속에 있는 유족을 향해 얘기하다가 어느 지점에선가 슬픔에 민감한 나의 숨겨진 성격을 들킬지도 모른다. 재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족의 심리는 쇼크, 부정, 분노, 우울, 재사회화라는 법칙적인 발전 경로를 걷는다는 얘기가 아직껏 사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던 몇몇의 유족에게 아주 적으나마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준 모양이었다.

강연을 듣고 우리 유족이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일본에서는 과거에 몇 번이나 대참사가 있었는데도 그때의 경험을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아서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유족들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되풀이해서 겪어야 했다”고 하는 사실이었다. 이제 우리의 체험만큼은 제대로 정리되어 훗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면 남편의 죽음이 덜 헛될 것이다.

나는 그때의 강연을 계기로 30명이 넘는 8·12 사고의 유족들로부터 그들이 겪은 아픈 경험에 대해 듣고 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확인하는 것은, 대형 참사로 찢어진 유족의 마음은 이 사회 시스템에 의해 한 번 더 상처를 받지만, 그럼에도 유족들이 ‘이승’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사고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인간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라는 것이다.

시신을 되찾기 위한 투쟁

대형 참사에서 유족의 절망과 슬픔은 시신을 찾는 투쟁에서 시작된다. 나는 몇몇 유족으로부터 “시신을 온전한 상태로 발견한 사람은 부분 시신밖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

시신에 집착하는 이유

대부분의 유족들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죽음이기에 조각난 시신이라도 가능한 한 다 확인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죽었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 죽음의 부정, 나아가서는 현실감 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시신의 대부분을 되돌려 받은 유족은 죽은 가족이 납골 항아리에 무덤에 혹은 불단에 잠들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해, 시신의 아주 적은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한 유족은 죽은 가족이 여전히 오스타카의 산속에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태도는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힌두교와 같이 사람이 죽으면 다른 윤회의 세계로 간다고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시신에 대한 집착은 적을 것이다. 불교나 기독교 역시 교의상으로는 사자의 혼은 별개의 세계, 심판의 세계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에 비해 일본 문화에서는 사자의 혼은 가까운 산에 살면서 오봉이나 설날에 집으로 찾아온다는 산상타계관이 깔려 있어서, 유독 시신을 집으로 모시려는 생각이 강하다.

죽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회상

미국의 손해배상 재판에서는 부부간의 애정이 중시된다. 서로 깊이 사랑했던 부부를 갈라놓았을 때는 남겨진 배우자에게 그것을 고려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한다. 8·12 사고 후 어느 주부는 미국에서 보잉사를 고소하려 했다. 그때 변호사로부터 결혼 후에 찍은 부부의 사진, 서로 주고받은 편지 등의 자료를 요구받고 놀랐다고 한다. 미국의 재판부는 이처럼 결혼 후 부부가 쌓아온 모든 것, 남편의 사회적 지위나 장래성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를 다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한다. 사고는 일상 비즈니스 세계의 사건이 아니다. 비일상의, 더구나 개인의 삶에 관계되는 것이다. 나는 전년도의 수입만 따지거나 보험회사의 계산표만 내민다든가 하여 유족을 더 참담하게 만드는 지금 일본의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와 사회가, 개인의 인간성을 중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배상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편이 얼마나 비행기를 자주 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녀는 사고의 전조로 여길 만한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사람은 어떤 경계에서 갑자기 인생이 바뀌면 그 전에 먼저 변화의 전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역행성 회상을 하게 된다.

레이더 아웃, 그리고……

그녀는 충격 후 망연자실하거나 정신착란에 빠져 격렬하게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비정상적이리 만치 냉정하게 사실 확인을 향해 직진한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냉정함도 역시 일종의 비현실감을 동반하는 법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구조자 역시 정신적으로 상처 입고있다는 사실이다. 죽음을 접하는 체험은 구조자에게도 깊은 무력감, 분노, 우울을 일으킨다. “손 쓸 방도가 없다고 하는 무력감, 시신의 처참한 모습과 냄새, 희생자 가족의 고통, 부상자의 고통, 그리고 극도의 압박 아래 작업해야 하는 상황 등”이 스트레스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유족의 정신적 외상을 더 깊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구조대원들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미확인 시신의 합동 화장을 멈춰라!”

그녀는, (후술하는) 슬픔의 6단계 중 충격 후의 부정, 분노, 우울의 단계를 급속하게 뛰어넘어 사회화의 단계로 나아간다. 남편의 시신만이 아니라 다른 유족들에게도 남아 있는 시신을 돌려주려는 치열한 사회적 활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는 경찰, 우에노무라 촌 사무소, JAL, 운수성을 상대로 싸우기 시작했다.

현실감의 상실에서 일어설 때

나는 몇몇 유족으로부터 정비 출신 담당자가 영업 출신 담당자보다 유족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유는 정비 출신인 사람은 사고가 자신들의 실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유족들에게 더 미안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영업직은 경제적 계산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고 정비직은 그런 계산에서 좀 더 멀리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기업은 담당자에게 피해자에 대해 정신적 지원을 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담당자가 유족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유족이 정신적으로 재출발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회사는 배상 교섭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짓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회사가 유족에 대한 정신적 지원을 노래하면서도 최초의 담당자 A씨 같은 사람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그녀는 사고 후 2년이 지나고서도 여전히 현실감을 상실한 채로 살고 있다. 남편의 시신을 찾아다니면서도 함께 살았던 인격으로서의 남편의 죽음을 부정하는, 이중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에 없다고 하는 비현실감은 남편의 죽음을 부인하기 위한 정신적인 방어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일을 맡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은 현실감을 상실한 채 사는 것을 감추기 위한 눈속임이다. 언젠가 그 현실감의 상실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녀는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깊은 마음의 피로 속에서 남편의 죽음을 마주보며 인정하지 않을까.

2장 ‘죽음의 독침’을 태우다

숨겨진 자책감의 감춰진 의미

죽음은 죽은 사람의 문제일까 아니면 남겨진 사람의 문제일까 하고 묻는다면, 죽음은 죽은 사람 이상으로 남겨진 사람의 문제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타인은 차마 볼 수 없는 신체의 파편이라 하더라도 가족에게는 한없이 소중한 것이다. 유족이 가족의 시신을 직접 대하는 것은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 받아들여 이후 서서히 현실감을 되찾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돌연한 죽음이 초래하는 ‘죽음의 독침’으로부터 유족이 조금이라도 빨리 치유되기 위해서는 직접 가족의 시신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죽음은 몇 겹으로 유족을 괴롭힌다. 단지 죽은 사람에 대한 애착, 사랑하는 대상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슬픔만이 유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이들을 남기고 먼저 죽어 버린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도 유족을 괴롭힌다. 그러나 정상적인 ‘자아’에게는 죽은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서, 그 원망과 비난은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비난으로 방향을 바꾼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 줬나’ 하고 자신을 탓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충분히 간호를 한 가족이 죽었을 때에는 유족은 자책감에 크게 시달리는 일 없이 정신적으로 비교적 쉽게 안정된다. 하지만 가족과 돌연히 사별하게 된 경우에는 ‘나는 무엇을 해 줬나’ 하는 자책감에 빠지게 된다.

민폐를 끼쳐서라도 남편을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우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N의 아내’로서 사태에 대처하는 자세를 취한다. 이것은 충격에 이은 일종의 이인(離人)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평정을 가장하여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평정은 쇼크 상태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옆에서 바라보는, 정신적으로 경직된 평정이다. N씨의 경우처럼 시신을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한 집요한 자기 비난은 유독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특유하게 나타난다. 그 집요함은 자녀를 잃은 부모, 온전한 시신을 직접 확인한 유족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유족 간에 감정적인 골이 되기도 한다.

‘사라졌을’ 뿐 ‘죽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J씨는 장례식이 끝난 후 사무적인 일을 해내면서 긴 우울 상태에 빠졌다. 감정도 의욕도 솟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압박해 오는 세월을 헤쳐 나갈 뿐이었지만 그것은 꼭 필요한 상(喪)의 단계 중 하나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남편의 죽음의 과정을 함께 체험하는 것이다. 남표는 돌연 죽어 버렸다. 죽어 가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았기 때문에 죽고 나서 다시 죽음의 과정을 천천히 밟아 가야만 했다. 그녀는 남편이 죽어 가던 시간을 공유할 수 없었던 대신 스스로의 감정이나 의욕을 동결시켜서 죽음의 과정을 반추했다. 사고 후의 유족의 우울 상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때 주위 사람들은 ‘죄의식’에 개입하거나 격려하기보다는 유족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좋다.

슬픔의 치유로서의 시신 확인

평정을 가장하여 사고 이전의 사회적 역할의 연장선상에서 유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망자를 떠나보내는 상(喪)의 작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족을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되돌려서 한 번 더 죽음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유족의 슬픔을 치유하는 길이다. 유족이 겪는 슬픔은 나이에 따라 농도가 다르다. 젊은 유족이 경험하는 슬픔은 격렬하고 그만큼 행동적이다. 50대를 지난 사람들의 슬픔은 깊은 절망에 지쳐서 M씨처럼 매주 현지를 찾아갈 기력이 없다.

유족과 시신 탈환 투쟁의 관계를 꼼꼼히 듣는 과정에서 문화나 종교에 따라 시신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시신에 대한 태도가 인간 심리의 근원에 관계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유족은 시신을 되찾는 행위를 통하여 죽은 사람을 천천히 죽게 할 수가 있다. 그것은 사고사, 돌연사에 대한 최소한의 복수이며 억울하게 돌연사한 사람에게 죽음으로 천천히 다가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작업이다.

‘유족의 시간’과 ‘관계자의 시간’

합동 화장은 서둘러 진행됐다. 그것은 죽은 사람과 유족의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업무 속에 사는 사람들의 시간에 맞추어 서둘러 진행된 것이다. 사고대책본부는 뼈를 123개 납골 항아리에 담아 1주기 위령제에 세워진 ‘승훈비(昇魂碑)’ 속에 넣고 ‘열리지 않는 문’을 닫았다.

3장 슬픔의 시간학

세월이 약

시간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키지만 또한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역시 시간(의 흐름)이다. 사건과 함께 다가오는 시간은 늘 갑작스럽고 크고, 슬픔과 함께 과거로 떠나가는 시간은 언제까지나 가늘고 긴 꼬리를 남긴다. 남겨진 사람은 떠나가려는 슬픔의 시간을 필사적으로 붙잡는다. 기억을 지우려 하는 세월의 풍화작용과 기억을 붙잡고자 하는 유족의 타는 가슴이 서로 부딪친 곳에 슬픔의 시간이 층을 이뤄 흔적을 남긴다. 사람이 가혹한 상실 체험을 소화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작용하는 과정은 ‘체험 완충의 시간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일상의 시간은 늘 사건을 향해 나아간다. 즉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법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제 조우할지 모를 돌연한 상실의 체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체험 완충의 시간학은 누구나 알아둬야 할 정신위생의 기본적 지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정신과 의사였던 에릭 린드먼은 대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진료에 관여했던 경험을 계기로 급성 슬픔에 대해 연구하게 됐다. 그는 피해자와 유족, 군인의 가족 등 101명을 관찰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급성 슬픔은 정신적 증상과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는 명확한 증후군이다.
2. 이 증후군은 위기 뒤에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지연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과장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외견상 현재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전형적인 증후군 중에 왜곡된 증상이 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때의 병증 역시 슬픔의 증후군의 일면일 뿐이다.
4. 이들 왜곡된 병적 증상도 적절한 기법을 사용하면 정상적인 슬픔 반응으로 유도하여 해결할 수 있다.

에릭 린드먼은 ‘슬픔의 증후군’의 정상적인 증상과 병적인 증상을 상세히 기술했다. “정상적인 슬픔은 신체의 고통, 죽은 사람의 이미지로 마음이 채워져 버리는 것, 죄책감, 적의(敵意) 반응, 일상 행동 장애 등의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병적인 슬픔 반응

슬픔이 가져다 주는 극심한 고통을 피하려 하거나 슬픈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억제하는 데에서 비롯되며, ‘지연 반응’과 ‘왜곡된 반응’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지연된 슬픔 반응은 유족이 뭔가 중요한 일을 끌어안고 있거나 주위와의 관계에서 손을 놓지 않거나 할 때 일어난다. 이 경우 유족은 처음에는 슬픔을 그다지 표현하지 않다가 몇 주일 뒤에 갑자기 슬픔에 빠진다. 여러 해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이 내면에 숨겨져 있다가 훗날 새로운 사별 체험을 했을 때 환기 되기도 한다.

왜곡된 슬픔 반응은 아홉 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상실감 없이 지나치게 활동적이 된다. 상을 당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활달하고 쾌활하며 활동적이고 위험을 즐긴다. 둘째, 고인의 마지막 병의 증상을 답습한다. 심장질환으로 아버지를 잃은 딸에게 심전도 이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심신증 영역으로 보이는 질환에 걸린다. 궤양성 대장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천식 등이다. 43명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중 33명이 가족과 사별한 사람들이었던 사실이 슬픔에 대한 연구의 계기가 되었다. 넷째, 친구나 가족, 친척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사회적 활동에 소극적이 된다. 인간관계에 소심해지고 사회적 고립이 진행된다. 다섯째, 특정인에 대한 적개심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의사에게 의무를 태만히 한다고 비난한다. 여섯째, 적의를 숨기려 하여 정신분열증 같은 모순된 감정과 행동에 이른다. 일상의 업무는 해내지만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하며, 모든 사람에게 적의가 끓어오른다. 표정은 굳고 로봇같이 움직이고 감정 표출은 부족하다. 일곱째, 사회관계의 패턴을 영속적으로 상실한다. 휴식이나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서도 그러한 증상을 고치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 여덟째, 타인에게 불필요하게 인심을 쓰나라 자기 물건을 줘버리거나 어리석은 거래를 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손해를 입는 행위를 한다. 자신을

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홉째, 심한 초조함을 수반한 우울 상태에 빠진다. 긴장, 불면, 자신은 쓸모없다는 느낌, 자기 비난을 동반하여 자살 위험이 높아진다.

린드먼이 말하는 왜곡된 슬픔 반응은 정상적인 슬픔 반응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다만 양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슬픔의 단계

유아가 모성을 박탈당했을 때는 아나클리틱 디프레션(정상적인 자극이 결여된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발달지체)-생후 적어도 6개월 이상 정상적인 모자관계에 있던 유아가 엄마를 빼앗겼을 때 발생하는 심신장애를 보인다. 1개월째 울고 보채고, 2개월째에는 소리를 지르고 체중이 줄고, 발육이 멈춘다. 3개월째에는 접촉을 거부하며 잠을 자지 않고 얼굴 표정이 굳는다. 3개월 이후 안면이 경직된 채로 있으며 움직임이 더욱 느려지고 기면 상태가 되곤 한다. 그러다 3개월~5개월 사이의 임계기가 지나기 전에 대리모를 찾아 주면 장애는 놀라운 속도로 없어진다.

청년기의 실연에는 체험 완충의 시간학이 성립한다. 실연의 시간 경과는 사별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 그러나 연인은 나름대로 죽을만큼 괴로운 대상 상실의 시간을 더듬어 간다. 쇼크-부인-분노-회상과 우울증-용서와 수용-재출발의 단계를 밟는다. 비교적 긴 우울증이 시기를 지나면 차차 마음의 에너지를 되찾는다. 상대와 상대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마음속으로 축복한다.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스스로를 상승시켜 새로운 생활로 재출발한다.

중년층 역시 언제 대상 상실에 직면할지 모른다. 도산한 사람이나 기형아를 낳은 부모의 반응을 모델화하면 처음에는 예기치 못한 일에 충격을 받는다. 두 번째로 사실을 부정하고, 세 번째로 슬픔과 분노를 느끼다가, 네 번째로 기형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다섯째로 ‘이 아이를 위해 살아가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사회 활동을 해 나가자’ 하는 재조직화의 시기가 온다. 퀴블러 로스의 저서에 나온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죽음으로 잊게 되는 대상은 자신의 생명이다. 그녀도 역시 쇼크-부인-분노-타협-우울-수용-탈 카덱시스(죽음에 임한 나르시즘)의 일곱 단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제럴드 캐플런은 심신장애에 대한 예방이라는 시점에서 망자를 보내는 상(喪)의 작업을 일곱 단계로 나눴다. 제1기에는 대상 상실을 예견한다. 제2기에는 대상을 잃는다. 제3기는 무감각, 무감동하게 된다. 제4기는 분노의 시기로, 대상을 다시 찾아다니고 대상 상실을 부인하는 등의 시도가 교차한다. 제5기는 수용의 시기로 대상 상실을 최종적으로 수용하고 단념한다. 제6기에 이르러 대상을 스스로 포기하고 제7기에서 새로운 대상을 발견, 회복한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사람은 견디기 힘든 체험을 마주하면 일정한 완충 장치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받아 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단계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하거나 억압하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데

지장을 주게 된다.

유족은 감정을 표출하고 주변에서는 받아 주어야 한다

유족은 제1단계 쇼크, 제2단계 사망 사실의 부인, 제3단계 분노, 제4단계 회상과 우울 상태, 제5 단계 사별의 수용이라는 단계를 거친다. 제1단계에서는 쇼크를 받고 평정을 가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평정해보여도 내면은 쇼크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따뜻하게 배려 해야 한다. 이런 저런 결정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사무적인 것은 주위에서 대신 해 준다. 제2단계에서는 상대가 죽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지만 주관적으로는 아직 살아있다는 상념 사이에서 오락가락한다. 이때 유족을 격려한다고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거짓 기대를 갖게 해서는 안되며 그렇다고 죽었다는 사실을 들이대면서 유족의 안타까운 마음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유족의 마음의 지평선에 내려가 동감을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 제3단계에서는 그 사람의 공격적인 언동을 주위에서 수용해 줘야 한다. 때로는 화내는 것을 받아줘서 분노를 밖으로 이끌어내 주는 것이다. 분노가 표출되지 않으면 공격성이 방향을 바꾸어 자기 파괴로 향하기 쉽다. 죽은 이를 뒤따라 죽을 생각을 하거나 위험으로 뛰어들거나,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을 스스로 억제하거나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위험증상을 일부러 방치한다. 특히 분노로부터 제4기 우울 상태로 이행하는 시기에는 자기 파괴 충동이 돌출하기 쉽다. 가만히 놔두는 한편 2차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때때로 지켜봐야 한다. 또 제1기부터 제3기까지 사이에는 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울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격하게 우는 것이 회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좋다. 고인의 원통한 죽음에 대해서인지, 앞으로의 막막한 인생을 생각해서인지, 모른채로 울고 있는 사이에 슬픔이 형태를 이루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제4기의 긴 회상과 우울의 시기를 통과하면 비로소 홀로 일어설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는 많은 시간을 혼자 있게 두다가 하루 중 어느 한때에 잠자코 곁에 있어 주면 좋다. 각 단계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본인이 원할 경우 소량의 강력 정신안정제, 항우울제, 수면제를 복용하게 해도 좋다. 배상 교섭 같은 것은 제4기가 지나고 나서 해야 한다. 유족에게 사별 후 바로 배상 얘기를 꺼내는 것은 무지한 짓이다. 이 단계에서 배상 얘기를 하게 되면 유족은 고인을 돈과 교환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더욱 큰 죄책감에 빠진다. 또한 변호사가 유족의 감정 표출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직 많은 배상금을 받는 일만 강조하는 것은 유족의 분노나 우울증을 더 오래 지속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쇼크 때의 가장된 냉정

대형 사고 소식을 들은 직후의 심리적 변화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유족은 “의외로 냉정했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냉정’은 사고를 인정하고 사태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냉정이 아니다. 사태를 비현실감에 의해 격리시키고 ‘행동하는 나’와 ‘느끼는 나’를 억지로 떼어 놓으려 하는, 나아가 감정이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차가움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 속의 생

대형 재해나 사고 후에 뒤따라 자살하는 유족은 결코 적지 않지만, 의도하여 자살을 실행하지는 않더라도 Y씨 같이 몸을 돌보지 않는 형태로 죽음에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위염이나 대장염, 간기, 고혈압 당뇨병 등의 증상을 자각해도 대처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람의 몸도 살아 주기 위해 혹은 죽은 사람을 계속해서 애도하기 위해서도 ‘내가 잘 살아야 해’라고 생각하는 한편, 웃거나 즐기거나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행위조차도 죽은 사람과 슬픔을 공유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건강 챙기기를 거부하는 경향도 보인다. 이처럼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몸의 건강을 무시하는 것은 일종의 ‘은폐된 자살 미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몸을 돌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위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무시하고 행동하려 드는 것이다.

4장 풍요로운 상(喪)

슬픔에도 나이가 있다

노인의 슬픔은 메말라서 생명력이 부족하고 슬픔의 한탄이 길게 이어진다. 슬픔에 빠져 죽기를 바라는 한편, 그래도 고인의 혼을 달래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년층의 슬픔 속에는 깊은 절망이 숨어 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충격에도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정적인 질문이 계속 떠오르지만 어른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해오던 일을 내팽개쳐 버릴 수 없다. 20대부터 30대 전반까지 젊은 층의 슬픔은 타오르듯이 격렬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의 광채가 있다. 고인과 긴밀하게 일체화하여 자기 파멸로 돌진하나 싶다가도 고인과의 대화 안에서 자신이 살아갈 방향을 찾기도 한다. 젊은 사람의 슬픔은 날카롭지만 그들이 흘리는 피는 그만큼 통증을 씻어 내는 힘 역시 갖고 있어서 정상적인 상(喪)의 과정을 거치면 재생의 여지도 크다.

어린 시절 사랑하는 대상을 잃는 경험이, 후일 어른이 되고 나서 심신장애, 특히 우울증이나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대상 상실로 말미암은 슬픔의 각 단계마다 거기에 맞는 정신 요법적인 위기 개입을 잘 하면 나중에 심신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심신장애 예방을 위한 위기 개입의 방법으로 사별한 사람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표현하게 하는 기법이 개발되어 있다. 미국국립정신위생연구소는 <재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지원의 발전>(1985)이라는 책에서 그림 그리기, 이야기 시키기, 색칠하기, 인형이나 장난감으로 놀이 치료 실행하기, 집단 요법으로 자기표현을 하게 하는 것 등을 권장한다.

유소년기에 절망을 체험하는 것이 성인이 된 후에 암의 원인이 된다는 대담한 가설도 있다. 부모에게 마음 놓고 응석을 부릴 수 없었던 아이는 그 절망의 체험을 과잉하게 극복함으로써 특정인(배우자나 자녀)이나 일에 강하게 의존하게 된다. 그러다가 애착하던 대상을 잃으면 재차 깊은

절망에 빠져 암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아이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몇 살이 되면 생과 사의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형가리의 심리학자 마리아 너지는 10세 전후에 죽음에 관한 견해가 어른 수준에 다가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어린아이는 크게 세 개의 단계를 거쳐 죽음에 대한 관념을 형성한다고 한다.

제1단계는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게 보이는 특징으로, 규칙적이고 최종적인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부정하는 단계이다. 죽음은 출발이며 사람은 죽어도 다른 환경에서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죽음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상상한다. 이 나이대 아이는 무생물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 생명이 있다고 상상한다. 살아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이 구별되지 않는 애니미즘적 사고가 죽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2단계는 5세부터 9세의 아이에게 보이는 특징이며, 죽음이 의인화되어 사람으로 간주된다. 죽음은 존재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죽음을 자신들과는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는 죽음은 아직 나와는 관계가 없으며 보편적인 것도 아니다. 제3단계는 9세부터 10세의 아이에게 현저하게 보이는 특징이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과정이며, 육체적 생명의 봉괴라는 형태로 지각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 무렵의 아이들은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안다. 너지는 아이들은 10세를 전후해서 이미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아이에게 죽음을 숨겨서는 안 되며 또 숨길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아이에게 숨김 없는 자연스런 태도를 취해야 아이가 받을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풍요로운 과정

슬픔에도 아름다운 슬픔과 병적인 슬픔이 있다. 사람은 죽은 이를 보내는 상(喪)의 과정을 병적인 슬픔으로 바꿔 버릴 수도 있고 아름다운 슬픔으로 완성시킬 수도 있다. 나 역시 다른 이의 슬픔을 들을 때, 나 자신의 대상 상실 체험이 되살아나 상처를 입는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상처 입을 때는 상처 입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낀다. 하지만 상처를 입으면서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은, 병적인 슬픔이라면 그것을 치유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그리고 정상적인 슬픔이라면 아름다운 완성의 과정에 감동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은 상(喪)의 과정에 있을 때에도 창조자일 수 있다.

사물에도 정이 있다

우리는 늘 사물에 친근한 감정을 부여하며 산다. 내가 생생하게 살아 있을 때에는 나와 마찬가지로 외부 세계도 고유의 생기를 내뿜는다. 그것은 나에 의해 외부 세계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의 분리 및 상호 관계를 배우기 시작한다. 모친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지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들을 포괄하는 문화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을 키워 감과 동시에 사물에 대해 감정의 음영을 부여하는 방법을 배운다. 자기 감각, 자기의 독자성과 개별성에 대한 의식과 외부 세계에 대한 의미 부여가 조화를 이루고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는 외부 세계와 나의 상호 관계로서 존재하는 현실을 굳이 의식하

지 않으면서도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의 조화가 깨지면 평소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온 ‘현실감’의 중요성을 비로소 알게 된다.

가족이 재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순간 자기 감각은 위축되고 거꾸로 사물은 터무니 없이 크게 흔들리면서 자신에게 덮쳐 온다. 이것이 쇼크 때의 감각이다. 그 후 사고에 대처하고 장례 의식을 치르는 동안에는 자기 감각은 일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 그때 외부 세계는 거꾸로 멀어지고 색이 바래고 웬지 작고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 되어 있다. 이때 외부 세계가 멀게 느껴지는 데에 따라서 자아도 함께 축소되어 가면, 사람은 우울 상태에 빠지게 된다. 현실감이 상실되어 사물에 대한 거리감, 사물들로부터의 격리감이 강해진다는 것은 사물이 의미를 잃고 기능만 남게 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각각의 사물은 기능과 감정 사이에 고유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미가 없어도 그럭저럭 기능할 수 있는 것과, 그 사람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거의 기능하지 않는 것의 양극 사이에 대부분의 사물은 산재한다. 가까이에 놓고 쓰던 사물일수록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기능만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주위의 사물이 의미를 상실하고 기능만으로 다가오는 것을 견딜 수 없을 때, 유족은 이사를 가거나 집을 개축하거나 한다. 기능을 파괴함으로써 상실된 의미와 균형을 잡으려는 것이다. 한편 고인이 쓰던 유품은 기능이 영(零)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의미 부여가 커진다. 멈춘 시계, 불에 탄 벨트, 물에 젖은 지갑... 그것들은 유족에게 특별한 사물이 된다. 또 소유물, 공동으로 사용하던 물건, 공공의 물건은 거기에 부여된 의미가 각각 다를 것이다. 나아가 단시간에 의미 부여가 되는 것은 쉽게 퇴색되고, 오랜 세월 천천히 의미를 지니게 된 것들은 세월의 변화를 지탱해 주면서 천천히 변해 간다. 주위와의 관계를 닫아 버리지 않는, 과거에 대한 따뜻한 회상은 지금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치유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 가는 주위의 모든 것이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사고 후의 유족은 이렇게 과거의 일들을 되새기면서 슬픔을 극복해 간다. 그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앞날을 버텨나갈 힘을 갖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다.

주인공이 빠진 결혼 기념 파티

9,10월 일기

49제, 결혼2주년 기념 파티, 명의변경, 계절에 따른 옷정리

파티에 배구동료들과 부모님을 초대하여 남편과 함께하는 자신의 세계와 다른 사람들의 세계를 이으려 함.

주위와의 관계를 닫아버리지 않는, 과거에 대한 따뜻한 회상은 지금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치유라는 것을 그녀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관한 꿈

10~12월

마음속에서 고인과의 대화를 충분히 나누었던 그녀는 사고로부터 2개월이 지나 남편의 꿈을 자주 꾸게 된다.

꿈(3~7:자주 나타남), 추모비행

망각을 거부하는 마음이 꿈으로

12~1월 : 꿈(8~12:꿈에 잘 안 나타남), 남편의 30세 생일(배구 동료 모임),

진짜 상(喪)은 꿈속에서

꿈을 꾸고 난 후 얘기하는 꿈의 내용은, 실제로는 꿈의 단편일 뿐이며, 잠에서 깨어나면서 꿈과 나눈 대화이며, 나아가 잠에서 완전히 깨 내가 바라는 대로 가공한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처음에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고, 차차 상황이나 암시에 의해 죽었다는 것을 알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꿈1꽃밭(혼란스럼움. 퇴행) / 꿈2 '살아 있어 다행이야.' / 꿈3 최근 그와 한 이불 속에서 잔 적이 없다는 깨달음. / 꿈4 '이해하지?'

그녀는 깨어있을 때 마음속으로 그와 대화를 주고받은 후 꿈속에서 그와 만난다. 따라서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의 교류가 훨씬 실재감을 갖게 된다. 그녀는 죽음을 인정하면서 죽은 사람과 함께 살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백주몽에서 함께 사는 꿈으로

이렇게 꿈을 분석해 보면 꿈은 깨어 있는 시간 동안의 상의 과정과 대응하면서도 그 이상으로 풍부한 감정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음을 부인하며 긴장하고 있던 동안에는 '살아 있는 그'의 꿈을 꾸지 않았다. 장례식도 끝나고 49일이 지나 죽은 남편에게 말을 걸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에야 왕성하게 꿈을 꾸게 된다. 그리고 꿈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는 그'를 만나고, 그 후에는 죽음의 암시가 더해진다. 그가 사라져가는 것과 꿈에서 깨어나는 것은 동시에. 그 다음에는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사라져 가는 것, 새로운 생활 질서의 진전에 따라서 그가 잊혀 가는 것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한다.(꿈 5-12)

어느 꿈이든 꿈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울고 있다. 꿈속의 눈물은 꿈꾸는 사람의 눈물이면서 또한 죽은 사람의 눈물이기도 하다. 꿈속에서 함께 우는 것은 망자를 보내는 작업에 큰 도움을 준다. 꿈에서 우는 것은 큰 치유력이 있다.

유족은 죽은 사람을 자신의 마음속에 홀로 조용히 간직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슬픔에 동의해주는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 모순된 욕구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후 반년쯤 지나면 유족 사이에서 전화를 주고받는 일이 잦아진다. 그 대화에 오르는 것 중 하나가 꿈이다.

사고 직후에는 낮에 환상을 보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죽은 사람을 보는 것이 그 한 예이다.(41세 주부의 사례) 이와 같이 사고 직후에는 환상을 보고 얼마나 서 고인을 만나는 꿈을 꾸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고 직후의 백주몽에는 죽음을 부정하는 심리가 강하다. 그러다가 죽은 사람과의 오랜 슬픔의 대화를 거쳐서 꿈에서의 재회에 이르는 것이다.

프로이트. V씨의 꿈을 '본인을 죽은 사람과 동일시하면서도 살아 있기에 얻을 수 있는 쾌락을 상기하면서 죽은 사람과 분리되는 과정'으로 분석 / 융은 집단 무의식의 상징으로 기술 정리

1. 깨어있을 때의 풍부한 슬픔이 꿈을 준비한다.
2. 죽은 이를 보내는 상의 작업은 깨어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도 한다.
3. 꿈은 감정 표출에 가장 뛰어나다.
4. 특히 꿈의 작업은 죽은 사람을 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사람이 죽은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위한 것이다.

아들이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도 좋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의 인생을 바꿔 버린 사고를 풍화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JAL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항공사의 안전기준을 개선하게 하는 것과 같은 정당한 요구를 실현해 나가고 싶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한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희생자 자녀 장학금을 통해 JAL과 유족의 관계는 계속 될 것이며, 아이의 성장과 함께 사고의 의미를 계속 되새겨 갈 것이다.

5장 슬픔을 아이와 함께 나누다

정신적 외상이 남겨 놓은 그림자

사람의 마음은 견디기 힘든 체험을 하게 되면 세 가지 문제를 끌어 안게 된다. 첫째, 쇼크나 반복되는 불쾌한 체험에 의해 말 그대로 마음에 ‘정신적 외상’을 입는다. 신체 외상은 상처가 남더라도 원래 기능으로 돌아가지만 정신적 외상을 입은 마음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변하게 된다. 둘째, 정신적 외상을 입으면 그 상처를 과잉하게 싸서 감추려 한다. 무너진 정신적 균형을 되찾으려고 과잉된 자세를 취하게 된다. 정신적 외상을 입은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긴장하고 경계한다. 자기 마음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동정이나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 애쓰면서 이전보다 더 강한 면모를 보이려고 한다. 마음의 상처를 극복한 사람은 자신감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름의 정신적 방어 방식을 고정시키고 절대화시키게 된다. 셋째, 세월이 흘러 정신적 외상과 정신적 방어가 하나의 세트가 되어 마음 밑바닥에 앙금으로 고였을 때, 그것은 콤플렉스(심적 복합체)로서 그 사람의 삶을 움직여 가게 된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둔 아내가 사별을 체험하면, 두 번째 문제인 과잉방어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아이와 함께 남겨진 아내가 어떻게 상(喪)의 과정을 견뎌 내고 아이에 대한 대응을 강구해 가는지 따라가 보자.

처음엔 아이들 생각을 미쳐 못 했다

여성 A씨. 40세. 아들 하나 딸 둘.

사고 당시 집에 남은 두 딸을 생각 못함. 그 후에도 아이들과 현지 방문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냥 죽어 버리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을 함. 아이들을 상의 과정에서 상대해야 할 대상으로만 봄.

세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지 않으면 애들 아빠 볼 낮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정신 차려,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라며 세 아이를 몰아댐. 큰 딸의 방황, 아들의 반항이 이어짐. 아이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상처 입었다는 사실을 당시는 미처 이해하지 못함.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과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불안, 모자가정에 대한 외부의 편견, 꺼여서는 안 된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으로 완고해지고 아이와의 관계에 장애를 만들.

큰딸(당시 15세): 아버지는 출장이 많아서 없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그 보다 어머니가 히스테리를 부리는게 싫어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놀며 다녔다.(사춘기 특유의 심리에서 주위와 자신에 대해 경계를 하면서도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에게 일정의 상실임을 깨닫고 있음.)

작은딸(당시 10세): 아빠는 죽어버린거니까 돌아오지 않는다고는 생각하고 있었다. 주위 어른들이 모두가시가 돌아있었다. 언니 오빠도 입시 때문에 가시가 돌아있었다. 하지만 학교에가면 아무도 모르니까 학교에서 한숨 돌렸다. (주변 상황을 통해 슬픔을 이해 함.)

아내가 말하는 남편의 부재에는 남편의 죽음을 부정하는 심리가 작용. 딸의 경우는 죽음을 말 그대로 부재로 치환하여, 아버지가 없어진 가족의 유대의 재구성을 강하게 추구하는 모습 보임.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에게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상실감이 남편을 잃은 배우자만큼은 크지 않다.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일체화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 경험한 사별의 슬픔이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모습을 바꾸어 재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사별한 자녀들에 대해서도 나이에 따라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한다. (3장 슬픔의 지연반응)

‘유서’에 대한 두 번의 약속

여성 B씨. 오사카. 13살, 9살 아들. 남편(당시 40세)은 생활력, 독립심이 강함. 부지런함. 대기업 영업부 근무하며 아내를 도와 가게 운영. 아이들과 함께 컵스카우트활동. 쉬는 날 아이들과 놀러감.

남편 사고 소식에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김.

“모두가 같은 얼굴을 한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다.” 사람은 받아들이기 힘든 체험을 하게되면 한동안 주위 사람들을 미지의 존재로 보거나 사물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49일 까지는 시간이 빨리가고, 기억이 나지않음. 7kg빠짐. 수면제복용

먼저 간 남편의 무책임함을 비난.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않은 배반으로 받아들여짐.

남편 유서에 “아이들을 잘 부탁해 ”라는 글에 배신당한 기분임. 죽는 순간까지 아이들 얘기를 썼구나. 화가 남.

시간이 흐르며 남편의 마음을 생각하게 됨. 가게로 돌아가 일에 매달림.

큰 아들. 처음에는 착실함. 반년 동안 차차 거칠어져감. 주의의 이야기가 무거운짐이 됨.

작은 아들. 아빠와 애착이 큼.아빠부재로 계속 불안정함.

외삼촌과 상담. 남자입장에서 필요한 충고를 해줌. 아들들을 이참에 어른 대접을 해주면 어떨지 조언함. 그래서 JAL에서받은 배상 금액, 가게 운영, 앞으로의 생활 설계를 모두 아들들에게 보여

주고 설명함.

>>B씨는 A씨보다도 자신이 받은 충격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남편에 대한 공격적인 어리광에 젖어든 후 경제적 가장 역할로 단숨에 이행 하였고, 그것으로 사별의 슬픔을 극복하려 함.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야한다는 강박을 보임. 아이들은 어머니로 있어달라. 아버지의 빈자리는 함께 메워 나가자고 호소함.

아이의 억울한 마음을 들어주다

M씨(34세. 2장의 인물). 8세, 4세 아들.

남편의 몸통을 찾고 돌아와 장례식을 마친 후, 매주 후지오카를 오가며 결국은 머리 부분 시신까지 찾아냄.

아이들 앞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울지 않으려 함. 밤에 아이들이 잠들면 불단 앞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남편에게 원망을 쏟아냄. 과음을 하고 토하던 그녀를 큰 아이가 본 후, 술을 끊음.

처음에는 아빠를 잊게 하려고 노력함. 마치 아무일 없다는 듯이 아빠의 좋았던 면만 아이들에게 강조. 하지만 큰 아이 담임으로부터 “아이를 한껏 울게 해주세요. 거짓으로 활기차게 굴고 착한 아이인 척 하는 것이 걱정됩니다.”라고 들음.

49제 조금 전에 아버지 사진 앞에서 사건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움. 그 이후 합동 화장, 현지 유령제가 있을 때마다 알리고, 아이가 원하면 데려감.

“아버지 없이 커서 이런 애가 됐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할래?”(편부모 가족에 대한 콤플렉스)하고 아이를 다그치는 일이 있고, 큰애가 불만을 토로함. 사과하고 함께 움. 아빠 얘기를 대놓고 한 것은 그 때 뿐임. “큰 아들은 엄마를 배려하느라 말도 참고 울음도 참았을 것이다.”

**가족 구성이 유동적인 채집 수렵 사회나 원시 농경 사회와는 달리 문명 이후의 사회는 가족 구성이 고정화된 틀을 갖게 되었다. 특히 산업사회에 들어와 핵가족이 보편화하면서 편부모 가족에 대해 콤플렉스가 생겼다.

작은애는 “아빠”라는 말에 엄마가 눈물지으니까 조심함.

“죽음을 아이에게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숨김없이 자연스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이가 죽음에 관해 알았을 때 받을 충격을 줄여준다.”(마리아 너지) 그러나 불행한 사별을 한 사람이 아이에게 ‘자연스런 태도’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세 명 모두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여 완고한 모습을 보이다가, 아이가 반항하자 자세가 경직되었음을 깨닫고 아이와 함께 우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그러나 아직은 긴장을 완전히 풀지 못하고 아이와의 대화를 반복해 간다. 그것이야말로 부모와 자녀가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여 가는 자연스런 과정이다.

이를 위해 살아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분노를 충분히 표출해야 한다. 분노의 내상은 완고하게만 들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담을 쌓게 만든다. 그것은 상(喪)의 과정을 늦출 뿐 아니라 아이들에

게도 영향을 줘서, 나중에 이별이라는 것에 대해 비정상적인 민감성을 갖게 만든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경험이 나중에 안 좋은 영향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의 과정을 잘 맑아 나가야 한다.

남성 친구들이 떠나간다

일본 사회에서는 사별한 여성이 그 동안 잘 알고 지내던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김. 주위의 호기심 어린 눈길에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어서 더욱 과민해짐.

가까이 지내던 남성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사별이 갖는 의외의 사회적 측면을 앓.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은 상상 속에서 남편의 유지와 대화하며 아이를 돌보는 데 열중한다. 그러나 문득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곤 한다. 나이든 여성은 앞으로 단둘이 느긋하게 살자고 생각했던 노년의 세월을 빼앗기고, 그 공백을 조용히 메우려 애쓴다.

6장 치유의 얇은 피막

(상의 과정에서 유족이 체험하는)슬픔의 네 가지 변수

■ 변수1. 유족 : 남성/여성, 나이, 혼자/여러 명, 사회적 역할, 성격, 몸의 상태 등

- 남자: 사회적으로 훈련되어 있어서 사고로 인한 사별을 실무적으로 처리하려 드는 경향임. 사별의 아픔에서 도피하려는 심리기제 작용
- 여자: 상에 대해 실무적 태도를 취하게 되면 슬픔의 동결 상태로 있게 됨. 일반적으로는 남성보다 슬픔을 더 많이 표출하며, 때때로 정신착란을 일으키면서 슬픔의 단계를 넘어감.
- 제1유족/제2유족 : 제1유족은 고인과 일체화하여 죽음을 애도하는 유족, 상주와 동일 인물 아님.

예) 자녀를 잃은 부부의 경우 (1)극심한 슬픔 표출/간호하는 역할로 상보적 관계. (2) 아버지 가 가해자에 대해 공격이나 사회적 발언을하며 적극적임./어머니는 그것을 따라감.(자녀의상을 부부가 따로 체험하는 경우가 많음.

- 일 : 일의 중요성이나 부하의 정도에 따라 슬픔 다르게 나타남. 일반적으로 한창 일 할 나이의 남성은 상실로부터 회복이 빠르고, 중노년 주부의 경우는 늦음.

슬픔에 잠기는 시간과 환경이 부족해도 안 좋고, 지나치게 많아도 안 좋다. 초기에는 비탄해 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하고, 후기에는 적절히 자신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적당한 일과 사회적 역할이 슬픔으로부터의 재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제각각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슬픔을 짊어져야 한다. … 슬픔을 충분히 그러나 병적이지 않게 체험하고, 이미 일어나 버린 비극 너머에서 다시 다음 인생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 성격 : 자립적이고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은 가장 깊게 슬픔을 받아들임. 의존적인 사람은 휘둘리며, 심리적 방어 태세가 강하고 타인에 대해 완고한 사람은 부인, 공격, 실무적 처리 등으로 도망치기 쉬움.
- 기타 : 과거 경험한 상이나, 이별 체험, 특히 청년기 이전의 사별 경험 유무, 사별 경험이 있으면 사별했을 때의 상황이 중요

■ 변수2. 죽은 사람

- 남편/아내 :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부부 사이가 좋았는지, 의존적이었는지, 권리가 있었는지, 불화했는지 등 (단, 돌연사는 두 사람 관계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서 미화되어 회상되는 경향이 있음.)
- 자녀 : 몇 살이었는지, 어렸는지, 사춘기였는지, 이미 성인이 되었는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따로 산 몇 년 지났는지 등에 따라 달라짐. 외동자녀를 잃거나, 자녀 모두를 한꺼번에 잃은 경우는 살아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와는 다름.

■ 변수3. 죽음의 상황

- 천재/인재, 사고의 규모 정도, 불가피한 사고 인지.
- 가해자가 개인/조직. 조직인 경우 규모(국가/대기업/중소기업), 원래 사고가 많던 기업인지, 관계는 어떤지.
- 죽음 그 자체의 가여운 정도와 죽은 사람의 원통함의 정도(유족이 대신 상상하는 것)이지만

■ 변수4. 사고 ‘후’의 환경

- 가해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구조자나 관계 기관의 자세는 어땠는지, 상의 비즈니스 주체들이 유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 가족, 친구, 친척, 지인, 이웃, 고인이나 유족의 직장동료들의 공감의 두께에 따라 슬픔 달라짐.
- 사회가 유족의 슬픔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사고 후의 환경개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먼저 보낸 자녀의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노년

R씨(여. 63세) 노부부(남편 76세)가 어촌에서 지냄.

차남의 가족(차남, 며느리, 손자, 손녀 4식구. 도쿄 거주)이 추락사. 5,8월 가족과 부모 찾아왔음.

R씨 : 이야기는 원통함과 회상이 반복됨. 사고 후 1년 동안 정신적 불안정으로 불면증, 자살 우려 큰 상태 였음. 죽은 가족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의 반추. 3년 동안 산에 7~8번 다녀옴.

남편 : 아내의 병적인 상을 간호. 아들이 좋아하던, 펜글씨 가르치기를 계속함. 반야심경을 베껴써서 위령의 뜰에 가져가서 나눔. 아이들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 씩 부처님께 절함. 죽은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어, 오래 살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함.

고립되어 있고 지식도 부족하여 자신들의 불행의 이유를 밝히는 일은 할 수 없지만, 유족회 활동은 못하고 문집에 편지를 보내곤 함.

죽은 사람에 비해서 오래 사는 것만이 두 사람이 사는 의미. 아들 가족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만

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함.

“인간은 삶의 조건이 견디기 힘들면 힘들수록 자신이 그런 조건 속에서도 왜 살아 있을 필요가 있는가, 자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비로소 삶을 살아 낼 수 있다.” 빅터 프랭클 <밤과 안개>

죽은 이의 시계는 아직 가고 있다/사고를 암시하는 징조가 있었다

F씨 가족의 유족(60세 남은 F씨 양친과 장모 면담)

F씨(33세), 아내(31세), 딸(3세). 디즈니랜드 다녀오다가 사고사. 완전 시신.

사건 당시 현지에 갔던 F씨 부친은 불행을 사무적 태도로 봄으로써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 함. 모친은 감정적. 사돈의 경우 바깥사돈이 쓰러져서, 안사돈이 대신 확인함. > 부부의 경우 한 쪽이 격렬한 감정 표현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실무적인 태도를 취함.(상호보완)

F씨 모친 : 사고 후부터 계속 아들집에 묵고 있다. 그 애들이 지내던 때 그대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아들이 쓰던 손목시계가 아직 가지고 있고, 아침마다 알람 소리도 난다. 성묘를 자주 가다가, (자주가면 "갈 곳으로 못간다. '고 하여) 지금은 그 달 기일만 갔다. 밥을 못먹어 살이 빠지기도 했고, 사건 이후 가슴, 등의 통증이 있다. 요즘은 밤 중에 깨다.

F씨 부친 : 세 살에 죽은 손녀의 죽음에 대해 전조, 혼에 관한 이야기를 함.

노년과 함께하는 상

(1) 앞으로 살아가려던 노년의 의미를 빼았겼다는 것과 그에 대한 무력한 항의. 사고에 대해 비판은 하지만 뭔가 행동을 나서지는 못한다. 불행에 대한 원망만 할 뿐이다. (2) 운명론. 원한을 운명이나 상징적인 물건(시계)에 의해 무(無)화하려고 함.

이미 인생을 다시 만들어 갈 힘을 잃은 나이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화 과정과 병행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하는 정신적 치유의 과정.

사별에 대한 돌이킬 수 없다는 분노 안에서도 약동하는 슬픔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사람과, 생의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 앞에 멈춰 있는 사람은 상의 질도 시간도 도달점도 다르다는 것을 알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는 노년의 상도 인정해주어야 한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 아내 간호와 유족회 출석

J씨 가족(50대 후반의 부부, 22세 둘째 딸). 부는 작은 공장 운영. 성실하고 가정적임.

세 딸(24세, 19세, 14세)을 사고로 잃음. 큰 딸의 제안으로 자매가 디즈니랜드 다녀오던 중 사고사 함. 유족회와 긴밀한 관계 유지.

아내는 정신적으로 불안하여 남편이 그녀를 돌봄. 식사도 하지 않고, 불면에 시달리면서 못 마시는 양주를 마심. 7kg빠짐.

오스타카 산에 오르면 기분이 안정되는 것 같아서 두 달에 한 번은 같이 산에 감.

남편은 오로지 일에 매달려 옴. 하이쿠로 기분 발산함.

간사이 유족회에 부부가 함께 나가면서 슬픔을 서로 나눔.

새로운 동네로 이사 감. 사고 유족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함.

유족회 성장의 역사 / 하네다 앞바다 사고 유족회

대형 사고로부터 사고 후의 대책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배워 온 것은 가해자 측이지만, 새로 생긴 유족회 역시 과거의 유족회의 경험으로 부터 배우면서 조금씩 성장해 왔다.

오사카 센니치마에 백화점 화재(1972년) 유족회 : 당시에는 유족 배상 교섭 수단

하네다 앞바다 사고 유족회 : 하네다 앞바다 JAL기 추락사고(1982년). JAL의 배상 교섭 과정에서 유족회 출석 방해. 낮은 배상비용

제시 및 빠른 합의 종용. 추모비 요구 무응답. 언론에 쫓기고, 친척에게 비난 받음.

JAL기 추락사고(1985년) 유족회 : 배상 문제 관여하지 않음. 정보 교환, 정신적 지원, 사회적 활동. 가해자 책임을 추궁하고, 분노 공유 뿐 아니라, 슬픔을 서로 치유함.

떠나보내는 길위에서

7장 살아갈 이유의 재별견

지금까지 젊은 여성, 중년과 초로의 여성, 그리고 노인, 아이, 중년 남성의 상의 과정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이 장에서는 노년에 들어선 남성이 사별 이후 어떻게 사회로 복귀하는지 살펴보겠다.

프랑스 문화인류학자 아놀드 반 게넵(1909) : 공동체의 사회적 의례에 대한 분석

- 인생의 전환기 : 탄생, 성년, 결혼, 죽음 등의 통과의례에는 기본적인 구조가 있음

나이, 신분, 상태, 장소 등의 변화나 잉해에 따라서 지금까지 위치에서 분리되는 ‘분리기’

중간의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과도기’

새로운 위치로의 ‘통합기’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 나름의 통과의례가 있음

사별에 직면해서 지금까지의 사회관으로부터 분리, 위기에 가득 찬 과도기, 새로운 사회관으로의 통합을 찾음

-> 원래의 위치로는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여행

사별을 당했을 때의 마음의 위치와 사별 후 상의 과정을 빠져나왔을 때의 마음의 위치는 다를 수 밖에 없음

나이 든 남성일수록 그 통합은 사회적인 변모를 수반하게 됨

1. 섬으로 가서 만난 사람

사고 후 3년(1988) 된 이즈시마 섬에서 홀로 살고 있는 U씨를 저자가 만남
아내(47)와 딸(22)을 봅음

U씨는 아내의 고향인 아즈시마에서 20여년간 개업의, 지역의 유일한 정형외과 의사. 바쁜 일상
자신은 진료에만 몰두, 아내가 진료소 사무나 집안 일로 내조함.

아들과 딸이 있음

사고 당시 아들은 의과대학 6학년, 지금은 간사이의 병원에서 근무

사고 당시 딸은 의과대학 4학년.

딸이 어렸을 때 받은 고관절 탈구 수술의 흉터를 없애려고 도쿄의 성형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항공기 추락사고 당함

사고를 인지한 순간, 심인성 혼미에 가까운 상태 빠짐

외부의 정황을 인식은 하지만 의지 표시는 부족, 체험 내용은 공허, 가슴속이 죄어드는 신체적
고통체험 ; 급성 슬픔 증후군

3일 후 아내와 딸의 시신 발견

2. 안정된 만남을 추구

다시 섬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U씨의 세계의 의미는 이미 바뀜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 뒤 진료를 시작. 현실감이 없음. 인생이 무의미해짐

'믿을 수 없어', '죽는 순간 고통스러웠겠지' 등등 생각이 떠올라 다시 잠들 수가 없었음
모든 생활이 달라짐. 고통은 완화되었지만 잊을 수는 없었음.

생활의 영역을 축소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인사를 주고받음,

병을 치료하는 것은 U씨지만, U씨 자신도 환자로부터 사는 의미를 얻고 있음

안정된 만남이 가능한 범위로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주지 않는 익숙한 일을 해
나가는 것은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JAL과 진정한 대화를 하고 싶다

4. 처음 의사가 됐을 때의 바람을 이루고 싶다

지체부자유아 시설을 두고 싶어 정형외과 선택하였으나 적자라서 흐지부지 되었음

JAL로 부터 위자료 대신 섬에 시설 만들어 달라고 하고 싶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았음

언젠가 아들이 안정이 되고 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런 쪽으로 일을 해볼까 생각.

1990년(5년 후) U씨는 의사회의 이사로도 복귀

5. 보잉사 소송과 마음의 치유

U씨와 달리 가족의 죽음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일직선으로 나아가며 싸운 사토 쓰기히코 교수

보잉사 상대로 한 집단소송 주도 1991년 3월 26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화해 성립

29살의 장녀 잃음

워싱턴 주의 일본 배척하는 정치적 분위기로 지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배상액의 상한을 정한다'는 주법을 1986년 8월 1일 발효예정. 법이 발효되기 전 제소해야 해서 많은 유족을 모을 수 없었음

미국에서 보잉 소송을 한 이유는, 미국에서 기소하면 제조 회사의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

1986년 7월(JAL을 포함) 제소, 원고 측 요구로 재판관이 증거 개시 명령, 그 단계에서 보잉사는 과실 인정. 미국 법으로 과실 인정시 그 이상의 추궁은 진행되지 않고 바로 배상문제로 넘어감

사고 원인 추궁을 전면으로 내건 소송은 배상문제로 한정되어버림

1987년 7월 "일본인 원고에 대한 배상액의 결정은 일본의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결

88년 3월 도쿄지방법원에서 다시 재판

사토교수가 소송에 관계한 이유는

딸에 대한 공양의 의미도 있지만, 다시는 같은 원인에 의한 참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

보잉사 측 잘못을 인정하게 만든 것은 다른 유족 배상 협상에도 도움, 재판을 했기 때문에 JAL과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 재판을 하는 것이 유족에게 정신적 치유

대형 사고를 일으킨 거대 기업에 대해 보통 사람들의 분노의 출구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사토교수의 큰 기여.

'딸의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제일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계의 항공기 사고 유족에게 '구명률 향상'을 호소

8장 가족의 생사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일인자다

1. 딸의 유지를 살려 만든 교코 기금

웨인 E. 윌리엄스 - 태평양 전쟁 때 해군 항공모함 승무원, 공군 파일럿, 1962년 공군 해상서바이벌 학교의 교원이었음. 퇴역후 민간 항공사 비상대책 설비 개발과 서바이벌 교육 등에 종사, 1981년 운수안전협회를 설립하여 생존율 향상을 추구하는 운동을 함

1989년 8우리 6일. 1989년 8월 6일 간사이의 유족이 세계최초 '항공기 사고 생존율 향상 국제 세미나' 개최

윌리엄스는 비행기는 추락하면 못 산다고 믿고 있지만, 노력을 하면 추락해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함. 비행기의 추락 자체가 승객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승객마다 비행기 추락 말고도 또 다른 사망원인 있음. 비행기 추락 원인만 찾아서는 안되고 사람이 왜 죽었나 하는 원인도 같이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됨

세미나 개최된 데에는 전 스미토모 전공 기사장 가와키타 다카오의 결정적 역할.

JAL기 추락 사고로 22살 된 딸 교코 씨를 잃었음.

가와키타

2. 미래를 향한 의미 부여

교코 기금은 죽은 딸의 유지를 살리기 위한 것

'유지의 사회화'

유족은 자기 자신의 재사회화, 다시 말하여 사회관계의 재구축을 실행하고 있음

재난 사고 그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은 아님. 재난 사고를 부인하면서 사고 나기 이전의 고인의 뜻을 회상하는 것

유족이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는 최선의 길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 자체에서 사회적인 의미를 찾는 것

사고는 우연이 겹겹이 겹쳐서 발생함.

비참한 사고였지만 그 사고를 계기로 뭔가 사회 전체의 자각과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희생자의 죽음은 헛되지 않게 됨. 유족은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바업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할 때, 고인에게로 향했던 생의 에너지를 사회를 돌릴 수 있음

인간의 의지로 제도나 기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불행에 대한 의미 부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향한다. 예를 들어 대형 사고의 경우 사고를 계기로 이후에 어떤 식으

로든 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럼으로써 그 사고에 의미가 있었다고 스스로 수긍할 수 있게 하는 것. 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불행한 체험도 해당.

3장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는 그 아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사회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아이와 자신의 불행이 갖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

“나는 위령이란 죽은 사람과 남겨진 사람의 대화라고 생각한다…쌍방향 대화를 한다면, 죽은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또 하나는 설령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죽고 싶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지지하게 듣고, 말 못하는 죽은 사람 대신에 우리가 그것을 호소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위령이 아닐까.”

3. 실용적이고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가와키타 씨도 교코 기금 설립만으로는 도저히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사고 그 자체의 의미를 추구하기 시작

‘추락 사고 = 죽은’이라는 고정관념. 하지만 4명의 생존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생존율을 높이는 방책을 JAL과 논의

1. 가톨릭 수녀들의 필리핀 지원 활동 후원
2. 생존율 향상을 위한 활동 요구

실용적이고 쉽게 실시할 수 있는 (Practical and easy to practice)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을 요구!!

4. 사고조사위원회의 오독

사고 2년 후 1987.6.19.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설치법 제20조

‘JAL 소속 보잉식 747SR-100형 JA8119·군마 현 다노 군 우에노무라 산중·1985년 8월 12일’ 부제가 딸린 보고서(340쪽이 넘는)

이번 조사에 참가한 위원들은 항공공학 전문가들뿐이었고 법의학 전문가는 없었음. 처음부터 사람의 생사에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되어짐.

4명의 생존자에 대해서는 “기적적인 일이었다”고 마무리됨. ‘우연히’ ‘기적적’ 이런 말로 대충 넘어가는 태도를 참을 수 없었음

미국으로 건너가 스나이더 박사의 자문을 구함

요구서

1. 기내에 있는 낙개나 담요 등을 이용하여 머리와 배를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현재 항공사가 제시하는 비상용 안전 사세를 재검토할 것. 헬멧, 복부 보호구 등의 긴급 보호 장비를 제공할 것. 안전벨트의 안전성을 개선할 것 등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가와키타 씨의 의견을 무시
운수성 항공국은 항공진흥재단에 ‘항공기 안전기술 조사연구위원회’가 발족

5. 서바이벌 교관 윌리엄스

가와키타 씨는 다시 미국 방문하여 미국의 항공 안전 법규가 성립되는 과정을 공부하고, 생존율 문제 전문가를 만나보고자.

매년 두 차례 미국에 건너가서 생존율과 항공 안전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국제회의 준비
1989년 4월 세 번째 미국행에서 가와키타 씨는 사고 조사에 대한 일본과 미국 정부의 대응 방식
이 전혀 다름을 알게 됨

‘항공기 내의 안전 설비를 토론하는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출석자들 사이에 본질을 파고드는 토론이 행해지는 것과 성실하게 임하는 위원장을 칭찬하니 그녀는 세금으로 한 것이라며 사회가
요구하면 모두 오픈하는게 당연하다고 여김

‘우에노무라 세미나’ 윌리엄스 씨는 비행기는 내공성을 갖도록 설계되었지만 내파괴성은 고려되
지 않았음. 기체 내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에 전체 구조의 겨우 15처센트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음

가와키타와 윌리엄스의 공통점. 실효성 있는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
항공 사고 희생자를 줄이자는 하나의 목표 지점

6. 유족과 시민 의식

1989년 일본에서 생존율 향상에 대한 국제회의가 열리 수 있었던 것은, 가와키타의 노력으로 스
나이더 교수, 일리엄스 등 전문적 지식과 520명 사망사고의 유족회운동이 함께 묶여 가능
대형사고 때마다 만들어진 유족회들의 노력
비판적인 유족 - 비행기 안전 대책의 최우선은 추락하지 않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추락하고
난 후의 일들을 요구하는 것은 JAL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저자는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유족회는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우열을 가릴 것
이 아니라, 지지하고 격려하는 입장이 되었으면 함. 사회적으로 평가되기 시작한 활동이더라도
그것만이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됨

세미나... 유족회(8.12연락회)가 주최자가 되지 못했고, 강사 여비도 ‘위령의 끌(JAL의 기부금을
받아 군마 현 우에노무라에 만든 8.12추락 사고 의생자 위령을 위한 재단법인)’에서 지출하는 데
대해 반대. 기부금을 모았음(유족이 아닌 기부가 많았음)

가와키타씨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재단법인 ‘위령의 끌’이 만들어져 연간 천만엔 단위의 돈이 그냥 불행을 슬퍼하는 데에만 쓸게 아니라, 사고의 교훈을 사회로 되돌려 주는 데에도 사용되었으면 했음. 기부를 해주고

딸의 죽으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사에 제일인자

9장 산 지킴이들의 히나마쓰리

1. 눈 내린 오스타카를 오르다

우에노무라의 산 지킴이..

유족들이 등산반이라 불리는 JAL의 중년 직원들. 매월 12일과 5월 연휴 전후에 산에 와 지내면서 오스타카로 오르는 산길을 유지하고 희생자들의 비석을 관리, 계곡 가까이 산막을 짓고, 위험한 그 길을 다니는 유족을 돋고, 악천후 때 산에 오르겠다는 유족을 따라 함께 산에 올랐다.

사고처리 과정에서 유족들로부터 불신을 받은 JAL의 다른 많은 직원들과 달리 유족들과 신뢰 관계를 계속 유지

2. 내부 임원의 시각과 전문가의 시각

T씨..JAL의 전 이사 다나카 시게노부. 항공 보안 담당 임원으로 퇴직 후 ‘항공 안전을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어 뉴스레터를 내고 있음

대학의 항공학과도 학생들의 취업문제로 항공회사를 비판하지 모하고 많은 정치인들의 자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 보험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빠지기 때문에 조금도 타격을 입지 않음.

사고가 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없는 회사는 변하지 않을 것임

해당 기업의 낙후된 문화가 추락 사고로 이어지고, 나아가 유족에 대한 왜곡된 처우로 이어짐

3. 위로와 배상 상이에서

유족담당자는 유족에 대한 대응을 원활하기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의 독특한 제도

3가지 역할

1. 지원 업무. 시신 확인 작업 지원, 정신적 쇼크를 받은 2차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 있는 유족 돌보며 화장에서 장례까지 실무 담당

2. 위로 업무. 장례식 이후 오랜 상의 광정을 함께하면서 공격, 의존, 절망의 삼각형을 그리는 유족을 보살피고 재출발을 독려

3. 배상 교섭 업무

- 위로와 배상 교섭의 이질적 성격 때문에 유족 담당자는 많은 정신적 갈등을 경험.
어느 담당자.... “합의는 합의 전문가가 해라. 유족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할 테니까”
마음의 풍요도 고려하는 배상이 되어야.
남편을 잃은 50대 후반 여성의 이야기
JAL의 담당자를 보고 있으면 회사에 속해 있는 인간의 슬픔을 느끼게 된다.
“되게 하라”는 회사 측의 무모한 지시 때문에 서류를 들고 나와 회사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가야 하는 남자 어른의 슬픔. 회사는 사원의 인격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회사의 체질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 실장이 나를 담당했을 때 그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협상은 극적으로 일단락.
택시가 안잡혔는데 그가 옷을 다 적셔 가면서 어렵게 택시를 잡아줬다. 그것을 보고 괜찮은 사람 이구나하며 도장을 찍어줌. 인간에 대한 믿음을 조금은 되찾음

4. 초심은 어디에

유족들이 담당자를 싫어하게 만든 대응 방식

기본적인 문제는 가해 기업 측에 있음. 담당자의 역할, 유족의 심정, 합당한 배상 방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담당자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사장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5. 유족을 찾아온 사장의 모습

조문을 오면서 조문할 사람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른 채 오다니. 사죄한다면 말없이 머를 숙였을 뿐 자신의 목소리는 전혀 내지 않았다. 조문 온 사람에게서 슬픔을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는 데서 오는 피로감과 공허감만 유족에게서 전해짐.

6. 곤도 선장의 죄의식

1988년 나다시오(해상 자위대 잠수함)와 제1후지마루 충돌 사고의 한쪽 당사자인 제1후지마루 곤도 만지 선장.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지고 싶은 마음으로 유족들을 찾아가 죄송하다는 마음만이라도 유족들에게 전하려함. 그러나 거절당하거나 원망하기 일쑤. 유족들을 두 번째 방문 중. 해난 심판이 끝나면, 그 시점에 다시 유족을 방문하여 심판의 결과를 설명하고 사죄하려고 함. 유족들에게 1년에 한 두 번은 편지를 쓰고 싶다고함. 건전한 죄의식이 느껴짐

7. 피해자 상담실의 아침

유족회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논쟁. 회사로서는 유족끼리 횡적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면 무리한 요구가 나와서 난처하다는 입장. 그러나 담당자 중에는 가능한 것은 인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음

의식되지 않은 스트레스의 근원은 유족을 배려하는 역할과 회사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이 충돌하는 지점. 일을 담당하고 있으 때보다도 퇴임하고 나서 오히려 정신적 문제더 더 발생 - 불면, 우울, 악몽, 막연한 죄의식 등 다양한 정신적 외상과 일상생활 부적응 증상

8. 담당자로서 JAL을 떠나다 정년을 앞둔 한 담당자의 회상

가해자나 유족이나 모두 상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다만 그 방향이 어긋나 있음
가해자 -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잊어 줬으면 좋겠다. 배상의 성립으로 일단락 짓고 싶다. 고 생각으로 이야기를 서두름. 전략은 자신들도 피해자로 굳게 믿는 것, 그리고 사고를 잊는 것
유족 - 사고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 버렸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삶의 방식도 바뀌기를 바란다. 고 호소, 고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함께 생각하고 함께 변해 가기를 제안하는 것

담당자가 “우리 회사는 사고 후 이런 개선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잘 살아주세요”라는 메시지로 유족을 방문하면 얼마나 좋을까.

불행에 처한 사람, 그들을 위로해야 할 사람, 모두를 지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보려 들지 않는 조직이다!

10장: 안전공동체로의 이륙

- * 사망률 0.1의 한계치, 1억 킬로미터당 사망률
- 사고 : 조종실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의 관련
- 비행기 사고 : 기체의 물리적 결함문제와 조종실에서의 인간적 리더쉽과 의사소통의 문제
- 비행사와 정비사 : 모두 기종마다 별도의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따야하는 직업
- 제트화 초기에는 기체고장 사고가 60-80%, 인적 요인이 20-40% --> 1975년 이후 사고의 60% 이상이 인적 요인과 관련
- 1990년 9월 보잉사는 1980년대 항공사고의 72%는 승무원의 잘못이라고 발표
- NASA 연구 : 1만2천 시간 이상의 비행 파일럿, 1인당 25건의 실수, 자주 다니는 구간에서 더 빈번, 가장의 리더쉽과 관리능력이 가장 큰 영향

* 조종실 자원관리

- 조종실에서의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중요
- 사소한 기계 문제에 대한 집착, 부적절한 리더쉽, 업무 위임이나 책임 분담의 실패, 불충분한 점검, 이용가능데이터의 불활용, 의사전달 실패, 특히 기장의 권위적 자세가 가장 큰 문제
- 조종실 내 자원관리의 3가지 중요 능력
 - 1)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능력
 - 2) 리더쉽과 관리능력
 - 3) 계획, 문제해결, 의사결정능력

위기에서 인간관계 관리능력은 운항승무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고 운항 승무원 모두가 함께 운항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민주적 인간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자립적 인간 능력

* 치료적 분위기의 창조

- 조종실의 리소스 관리능력은 마치 비행기 승무원 전체가 하나의 치료적 팀이 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 이것은 정신의학의 치료공동체의 사상과 거의 유사하다
- 맥스웰 존스가 제창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클라크에 의해 1960년대 정신과 병동에 크게 확장된 개념으로 기존의 권위적 병동 체계가 아니라 병동 내 모든 인간관계를 치료의 자원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이다
- 클라크의 병동 환경 치유요법은 다음의 원칙을 강조한다

- 1) 정보의 공유의 개방적 전달
- 2) 일어날 일에 대한 즉각적 공유된 분석
- 3) 새 행동양식을 체험하는 경험을 풍부하게 하기
- 4) 권위 계층을 없애고, 동등하게 접근하기
- 5) 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점검하기
- 6) 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조정하기

* 하네다앞바다 사고의 뒤처리 - 파일럿 신체검사 매뉴얼

- 기장의 실수가 24명의 사망, 87명의 중상을 가져옴
 - 기장이 추후에 정신분열증, 조현병으로 밝혀짐
 - 파일럿의 신체검사 매뉴얼이 형식적으로 강화됨
 - 항공의학에서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을 포함한 검진의 중요성 강조
 - 안전 운항수행을 위해 민주적 팀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자질과 능력 아주 중요함
- * JAL8119기장의 반사적 사고, 유나이티드 항공과 타이 항공의 경우, 시뮬레이션에 의한 생활 가능성
- 폭발음 이후 고도를 내리지 않고 텐을 시도, 5분간의 대화 없음, 18분간 같은 고도에서 계속 비행, 기체 파손 확인하지 않음 --> 하네다로 돌아가려고만 했다 : 기장의 판단력 이상 : 아마도 저산소증 상태
 - 바다위로의 착수 --> 생각하지 못함
 - 타이 항공 & 유나이티드 항공 : 산소마스크 착용 후 착수 등으로 대량 인명 피함
 - 시뮬레이션 실험 : 3명의 조종사를 통한 실험--> 3명 모두 하네다가 아니라 바다로 착수 시도, 1명만 비교적 안전하게 바다로 착수에 성공, 2명은 아주 위험한 상태
- * 치료공동체, 자원관리 사상은 유족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 JAL 8119기추락의 원인은 후부 압력 격벽 수리의 잘못이 주된 원으로 보고서에 등재되었다.
- 하지만 기장의 판단 착오에 따른 두 요인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정비파트나 조종실 모두 개방된 정보 공유로 하나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 대형사고를 줄이려면 정보를 비롯한 모든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수평적 차원에서 함께 치료적 자원을 모두 모아야 한다
 - 이것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유족과도 마찬가지이다
 - 향후 항공기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나 유족들의 새출발을 위한 일이나 모두 서로 민주적 공동체가 되어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11장 상하이 열차 사고에서 보는 법률가의 경제학

- * 초상의 경영자들
- 유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게 하는 작업은 마음을 처참하게 한다
 - 그러나 배상전문가들은 돈만 받아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변호사들이

많다

- 그리고 그들은 유족들이 돈을 전부 받기만 한다면 대충 수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1) 돈만 많이 얻어내려 하면서 진정 유족이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변호사

2) 형사재판을 할 때에만 유족을 동원해가는 변호사

3) 유족의 심정에 대한 이해없이 기존의 법 이론을 정리하는 것에 만족하는 법학자

* 배상의 이유와 목적

- 배상의 목적이 이제 달라졌다

- 배상의 목적이 경제적 복원에만 의미를 두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경제적 문제보다 심리적 문제를 더 크게 남기게 된 시대가 되어서, 배상의 목적은 심리적 재출발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즉 배상액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가해자가 어떻게 사죄하는가, 배상교섭의 과정은 어떠한가, 유족의 새출발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등이 중요하게 되었다

- 많은 유족은 죽음의 금액보다 죽음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1988년 상하이 열차사고와 고치가쿠게이 고등학교 수학여행단 사고

- 학생 26명, 교사 1명 사망

- 학교는 책임이 없고, 장례는 합동장례로 치루어지고

- 중국, 일본 사이의 국교 문제로 외교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고

- 경제적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특별한 보고서 없이 마무리 되어지는 것을

- 어느 어머니와 유족들을 중심으로 원인을 밝혀내고 소송을 통해 의미를 찾는 과정을 진행함

-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한 일은 배상을 돋는 일과 국가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 일

- 유족의 마음을 생각하는 일은 없었다

12장 상의 비즈니스

* 사고를 녹화하는 남자, 불행을 수집하는 인간들, 물량보도가 만들어내는 두려움

- 사건의 모든 영상을 모은 오타쿠 이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
- 언론 기자들이라는 슬픔 사건꾼들
- 선두다툼을 즐기며 유족들의 기분, 얼굴,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유족의 마음을 헤집어놓고 상처주는 사람들
- 왜 보도하려고 하는지, 왜 알려야하는지가 불분명한 사람들

* 감정언어를 잃은 기자들, 연례행사가 된 비극보도

- 감정읽기가 되지 않는 기자들

* 비극 보도의 특징

- 1) 비참함을 최대한 강조한다
- 2) 배상문제에 대해 쓴다
- 3) 매년 돌아오는 주기마다 이야기거리를 만든다

* 그들은 늘 고정된 틀에 맞추어 보도 한다.

- 절망과 비참 --> 보상과 분노--> 재기와 찍찍함 : 3단계 프로그램의 고정된 틀에 따라 짜맞추어 보도 한다

* 언론이 해야 할 일

- 사고 직후의 폭력적 취재를 중단해야 한다
- 유족의 상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 비극보도의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
- 유족의 심리와 너무 다르다
- 인간의 이해를 빙곤하게 만든다
-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한다

* 신중하게 해야 할 일 - 합동위령제

상주 없는 합동 위령제 --> 해선 안 될 일

서둘러서 하는 합동 위령제 --> 해선 안될 일

가해자가 주최하는 합동 위령제 --> 해선 안될 일

상을 소비하게 하는 합동 위령제 --> 해선 안될 일

--> 합동 위령제 :

기다림 속에서 상주를 중심으로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준비와 함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맺음말 :

- 현대 사회 - 대형 사고 속에 의미 없는 죽음이 더 많아지고 있는 사회

- 슬픔과 애도 마저도 돈으로, 산업으로, 권력으로 갈취될 수 있는 사회.

사별의 슬픔을 이웃과 함께 공감하며 나누어야 한다.

스케줄과 배상금에 의해 치환되는 어떤 것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 시민들의 사적인 체험을 시민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지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사람들의 노력에 기대어 이 책을 썼다